

공공 돌봄·청년 참여 확대 방점...의대 해법 '제각각'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공약비교 <3>인구·청년·복지 분야

민형배, 돌봄기회 ↑...통합형 분산 의대 이정현, 청년 주도 도시·공공의대 추진 이종욱, 공공돌봄, 동·서부권에 대학병원 강은미, 무장애·청년특별시·필수의료 병원 김광만, 골든타임 안전망·정주환경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공공 주도 돌봄 확대, 청년 정책 참여, 육아 정책 강화 등 지역민 일상과 밀접한 인구·청년·복지 분야에서 공약 경쟁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비롯한 의료 정책에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초광역 24시간 돌봄모델 구축 ▲대한민국 최초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조성 ▲전남광주특별시 여성 부시장 임명 ▲특(特)수저' 빛 없이 시작하는 도시 ▲청년 정치 주체 참여 등을 인구·청년·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4시간 돌봄모델은 긴급돌봄센터를 27개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기본사회 특별시

●인구·청년·복지 공약

정당	후보	공약
민주당	민형배	-초광역 24시간 돌봄모델 구축 -대한민국 최초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조성 -전남광주특별시 여성 부시장 임명 -순천대·목포대 공동 운영 통합형 분산 의대
국민의힘	이정현	-위원회·자문기구·정책결정 51% 청년 구성 -전체 예산 10% 청년혁신 예산 편성 -공공의대 중심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2년 실무형 기술대학 확대
진보당	이종욱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공 돌봄공단 신설 -신생아 1억 미래펀드 -동부·서부권 각 500명상 대학병원 건립
정의당	강은미	-공공책임 돌봄체계 구축 -무장애 특별시 실현 -청소년 특별시 구현 -중증외상·심뇌혈관·소아진료 대학병원 설립
무소속	김광만	-골든타임 생명안전망 구축 -도시·지방 의료서비스 확대 -환자·간호사 중심 병원 신축 -지방 정주환경 개선

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 광역-기초-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빛 없이 시작하는 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은 권역별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 시행, 전라산업-청년 연결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 운영, '청년 예산제' 도입 등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형 분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예산 또한 균등하게 투자하는 한편, 부속병원을 양 권역에 모두 건립한



지방선거 벽보 첩부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관계자들이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다는 불안이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청년이 주도하는 통합도시'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위원회, 자문기구, 정책결정 구조의 51%를 45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예산의 최소 10%를 청년혁신 예산으로 별도 편성, 청년전용 예산은 100% 청년이 설계하고 청년 공무원이 집행, 청년이 감사를 맡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대 중심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또한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경찰대·사관학교와 같

이 국비로 의료진을 양성, 의무 복무로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계획이다.

2년 실무형 기술대학 확대로 기업과 인재가 동시에 모이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공 돌봄공단 신설 ▲공공 반려동물 케어 센터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설립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조성 등 공공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건립 전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건립 후 무상 이용토록 해 출산 가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공공 돌봄공단 신설은 시·군·구별 무료 공공 요양병원을 설립, '간병비 0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의료 체계 확충의 경우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500명상 이상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공공책임 돌봄체계 구축 ▲무장애 특별시 실현 ▲청소년 특별시 구현을 인구·청년·복지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장애 특별시 실현을 위해 장애인가정 '홈케어사업' 제도화, 관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탈시설 전담팀 신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 특별시 구현 공약은 현장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과 고용 안정화 추진, 노후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복합청소년센터' 전환, 각종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의무화 등이 다.

의대 문제와 관련, 강 후보는 중증외상·심뇌혈관·소아진료가 가능한 500명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골든타임 생명안전망 구축, 도시·지방 의료서비스 확대, 환자·간호사 중심 병원 신축, 지방 정주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시·군 면단위를 중심으로 의료·교육 시설도 최우선 확충,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1차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해 인구증대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스타벅스 실수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

'5·18 탕크데이' 입장문 “정용진 회장 책임” 姜시장, 행사 경품 스텐드 상품권 자체 지시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5·18 탕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한 실수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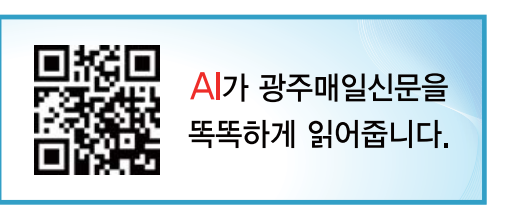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 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한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기수희 기자



김영록 지사 “역사 조롱·왜곡 기업 미래 없다”

성명 통해 스타벅스 강력 규탄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에 대해 "역사를 조롱하고 왜곡하는 기업에 미래는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또한 5·18 정신의 조속한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5·18 46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오월 영령의 희생을 기리던 날, 스타벅스코리아가 오월 정신을 난도질하는 참담한 마케팅을 펼쳤다"며 "이는 오월 영령과 유가족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를 조롱한 행위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단테데이·탱크데이·나수데이' 등 일련의 마케팅은 1980년 오월 광주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역사적 상처를 상업적 홍보 문구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케팅 과정에서 사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에 대해 김 지사는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축소·은폐하려던 군부의 망언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연상케 한다"며 "이에 격분한 국민을 6월 학생의 광장으로 불러냈던 그 역사적 도화선을, 2026년 현재 한 기업이 마케팅 문구로 끌어다 썼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사태가 회장의 사죄나 CEO 해임, 관계자 문책 수준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룸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있음)식당,사육,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땅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가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업주권3개는 덤입니다

[교환] 상가·모텔·주택·땅 교환합니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